

사상 첫 U-20 월드컵 준우승 “청년들은 대단했다”

폴란드월드컵 결승전서 우크라이나에 1-3 패 한국 男 축구 역사상 최초 FIFA 주관대회 결승 원맨팀 아닌 ‘원팀’...기량·전술·관리 최고

마지막 한 곳이 아쉬웠지만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 이제 막 소년티를 벗은 20세 이하 어린 선수들은 후회 없이 싸웠다.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16일 오전 1시(한국시간) 폴란드 우치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에게 1-3으로 역전패했다.

한국 남자 축구 역사상 최초로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 결승에 올랐지만, 브로피를 코앞에서 놓쳤다. 전반 5분 만에 이강인(발렌시아)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으나 이후 두골을 헌납했다.

졌지만 잘 싸웠다. 결승 진출 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쉽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우리 목표는 우승”이라는 선수들의 각오는 큰 대회를 앞두고 흔히 볼 수 있는 자신감의 표현 정도로만 받아들여졌다.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유효슈팅 1개로 무기력하게 몰라나자 16강 진출마저 불투명해졌다.

첫 경기 패배는 오히려 약이 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잡고 분위

기를 비준 한국은 비겨도 탈락할 뻔 했던 아르헨티나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조 2위로 당당히 토너먼트에 입성했다.

2년 가까이 틈틈이 호흡을 맞춘 선수들은 위기 때 더욱 강했다. 언제 만나도 결구려운 일본을 상대로 전반 술한 위기를 넘긴 뒤 후반 38분 오세훈(아산 무궁화)의 결승골로 신승을 거뒀다. 상대의 힘을 빼놓은 뒤 막판에 승부를 보겠다는 작전이 주효했다.

세네갈과의 8강전은 명승부였다. 1-2로 뒤지던 후반 추가시간 이지솔(대전)의 헤더로 기사회생했지만, 이번엔 3-2로 앞선 연장 종료 직전 아미두 시스에게 동점골을 헌납했다. 운명의 페널티킥에서는 초반 두 차례 실축에도 골키퍼 이광연(강원)의 선방으로 4강 진출에 성공했다.

남미 챔피언 에콰도르까지 넘어면서 일궈낸 FIFA 월드컵 준우승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는 선수들의 기량과 이를 하나로 묶어낸 전술, 철저한 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누구 한 명의 원맨팀이 아닌 전원이 하나가 됐음을 뜻하는 ‘원



대한민국 U20 축구 대표팀이 15일(현지시간) 폴란드 우치의 우치 스타디움에서 막을 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후 은메달을 목에 걸고 운동장을 떠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U20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1-3으로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고 이강인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대회 MVP인 ‘골든볼’을 수상했다.

팀’은 이번 대표팀의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다. 막내 이강인부터 주장 황태현(안산 그리너스)까지 모두가 자신을 내려놓고 팀을 뛰었다.

상대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정 감독의 다양한 전술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들을 지원한 스태프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다. 6·25동란 휴전 1년 만인 1954

년 스위스월드컵에서 처음 세계 축구계에 얼굴을 내민 한국은 1983년 멕시코 U-20 월드컵과 2002년 한일월드컵 4강을 통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번 대표팀은 선배들의 아성을 넘어 준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뤘다. 2019년 초여름 폴란드에서 선보인 청년들의 열정과 투지는 한국 축구사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이강인, U-20 MVP ‘골든볼’ 수상...세계가 놀란 원발



FIFA 주관대회 첫 결승이끌어 18세 대표팀 막내...2골 4도움 준우승 불구 최우수선수 인증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웃지 못했지만 막내 이강인(18·발렌시아)은 원발로 세계 축구계를 놀라게 했다. 대회 최우수선수(MVP) 적인 골든볼을 수상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은 16일 오전 1시

(한국시간) 폴란드 우치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결승전에서 이강인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에 1-3으로 패했다.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는 못했지만 한국 남자축구 역사상 FIFA 주관대회 최고 성적에 빛났다.

이강인은 이번 대회에서 2골 4도움을 기록하며 한국 남자 최초로 골든볼 수상자가 됐다.

이강인은 전반 5분 페널티킥 기회에서 침착하게 선제골을 터뜨리

15일(현지시간) 폴란드 우치의 우치 스타디움에서 막을 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시상식에서 골든볼을 받은 이강인(왼쪽)이 골든 글로브 상을 받은 우크라이나 골키퍼 루니코 포즈를 취하고 있다.

는 등 여전한 개인기와 킥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집중 결재에 시달렸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막내 이강인은 두 살 많은 형들과 뛰면서도 팀의 중심으로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이끌었다. 자로 잔듯 정확한 패스와 위력적인 킥, 개인기를 바탕으로 한 탈압박 등 모든 부분에서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했다.

이강인은 6세 때인 2007년 KBS 예능프로그램 ‘날아라 슛돌이 시즌 3’에서부터 필성 부른 덕이었다. 또래와 비교가 쉽지 않은 압도적인 기량을 뽐냈다.

재능은 스페인에 진출하면서 만개졌다. 10세 때인 2011년 스페인 발렌시아 유스팀에 입단해 본격적으로 선진 축구를 체득했다.

지난해 10월 스페인 국왕컵에 출전해 한국인 최연소 유럽 1부 리그

출전 기록을 세웠고, 올해 발렌시아와 1군 정식계약을 맺으며 프리메라리가에 데뷔했다.

3월에는 역대 7번째 어린 나이(18세20일)로 성인대표팀에 발탁됐다. 경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해 A매치 데뷔는 다음으로 미뤄졌지만 선발 자체로 큰 화제가 됐다.

그동안 유망주, 기대주라는 평가였다면 이번 대회를 통해 대표팀의 확실한 한 축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대회 동안 유럽 여러 클럽들의 영입 레이더망에 걸렸다. FIFA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과경된 공인 스카우트는 무려 155명에 달한다.

이제 이강인이 언제 성인대표팀에서 데뷔 무대를 가질 것인지에 큰 관심이 쏠린다.

빠르면 9월에 시작하는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지역예선이

될 수 있다.

2차 지역예선은 총 40개국이 5개 국씩 8개조 나눠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갖는다. 팀당 8경기를 치러야 한다. 각 조 1위는 최종 예선에 직행하고, 2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상위 네 팀이 합류한다.

한국은 최종예선에서 만날 팀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파울루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2차 지역예선 전까지 평가전이 없기 때문에 이때 이강인을 직접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

벤투호의 ‘믿을맨’ 손흥민(보통), 11일 이란과의 A매치 데뷔전에서 ‘포스트 기성용’으로 부상한 백승호(지로나)에 이강인의 합류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세 어린 나이에 원발로 세계를 놀라게 한 이강인은 어떤 성장세를 보일까. 축구팬들에게 즐거운 기대감을 주고 있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